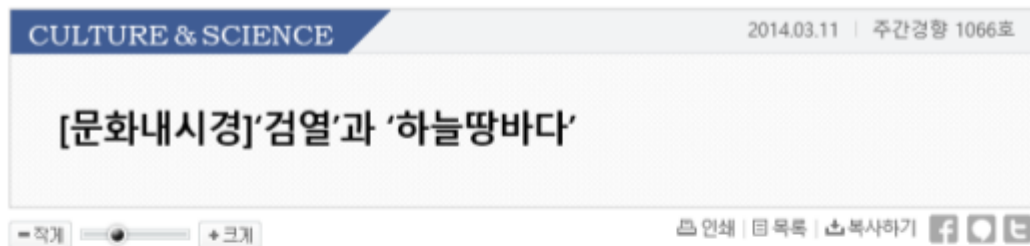


1) WEEKLY KYUNGHYANG 주간 경향(MAR 11, 2014)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403041103001&pt=nv>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은 물론 실험성 강한 작품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다채로운 [영상](#) 작품들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술관-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북촌 일대 6개 [전시공간](#)에서는 [호주](#)의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하늘땅바다'(LANDSEASKY)전이, 대안공간 [루프](#)(서울 서교동)에서는 아시아 각국 큐레이터들의 연합체인 '아시아 큐레이터 [네트워크](#)'가 기획한 'Censorship'(검열)전이 열리고 있다.

두 전시는 모두 치열하게 꾸려진 기획전이라 각 주제에 대한 작가들의 깊고도 폭넓은 사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작가들이 소재나 기법, 전시형식 등 자신만의 시각에 따라 어떻게 그 주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로렌 브렌넬의 'This Time Tomorrow, Tempelhof', 1채널 디지털 비디오.

대안공간 루프에서 3월 21일까지 열리는 '검열'은 올해로 7화제를 맞은 영상 전시 [프로젝트](#) '무브 온 아시아'(Move on Asia)의 주제이자 전시명이다. 한국(서진석·황대원) 등 11개국의 큐레이터 15명이 추천한 아시아 12개국 작가 21명의 작품 24점이 출품됐다. 한국 작가로는 김다음이 참여하고 있다.

검열은 흔히 비민주적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 감시, 통제하는 권력자의 통치수단으로만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과거와 달리 교묘하게 [위장](#)될 뿐만 아니라 억압의 정도도 더 심각하다.

정치권력자뿐 아니라 자본가, 기업, 종교 같은 각종 단체의 치밀하게 숨겨진 검열이 횡행하는 것이다. 국내에도 [번역](#)된 에마누엘 뫼레라의 저서 '검열에 대한 검은책'은 현대사회에서의 검열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인 바 있다.

미얀마·일본·중국·대만·터키·쿠웨이트·[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이번 전시 참여작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예술가적 감성·시각으로 검열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특히 '자기 검열' 문제를 제기한 작품도 많아 주목된다. 뫼레라가 "검열의 최고봉"이라 말한 자기 검열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 검열이기 때문이다. '검열'전은 관람객에게 정치·사회적 검열은 물론 자기 검열 등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호주·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시대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지원·기획하는 기관인 MAAP의 '하늘 땅바다'에는 한국의 김수자·심철웅·정연두를 비롯해 8개국 작가 15명이 참여했다. 하늘과 땅·바다를 경계짓는 수평선(지평선)을 통해 공간성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탐구결과를 엿볼 수 있다.

수평선(지평선)은 땅, 바다, 하늘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작가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지각에 대한 의문 제기, 실재와 환영의 문제, 나아가 [역사](#)적·사회적 의미 부여 등을 펼쳐 보인다.



①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인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년)를 비롯해 안 디베츠(네덜란드) 실파 굽타(인도) 로렌 브린켓(호주) 바바라 캠펠(호주) 헤이모 조베르니그(오스트리아) 데렉 크랙클러(호주) 등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드러낸다.

인터랙티브 [스크린](#), 버티컬 활용 등 내용을 전달하는 작품의 형식도 다양해 눈길을 끈다. '하늘땅바다'전은 아트선재센터와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야간 상영) 등 6곳에서 나눠 전시 중이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jaekke@kyunghyang.com>

## 2) JOONGANG 중앙일보 (MAR 05, 201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65579&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65579&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입력 2014.03.05 00:17 / 수정 2014.03.05 01:20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11)는 하늘과 바다를 뒤집어 놓은 6분 18초 짜리 영상이다. [사진 아트선재센터]

### # 하늘과 땅과 바다

수평선·지평선은 자연에 드문 직선이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이 선을 대상으로 삼은 미디어 아트 연합전이 기획됐다. 아트선재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스케이프·옵시스아트·원앤제이갤러리·이화익갤러리·갤러리인 등 북촌 일대 화랑 5곳에서 열린다. 호주 MAAP(Media Art Asia Pacific) 디렉터 킴 메이첸의 기획으로 중국 상하이(4~7월), 호주 브리즈번(9~11월)으로 순회한다.

네덜란드 미디어 아티스트 얀 디베츠(73)의 기울어진 '수평선'(1971) 시리즈는 초창기 미디어 아트가 자연을 달리 보게 만드는 예술의 오랜 기능을 시도했던 증거다. 김수자의 수평선은 위 아래가 뒤집어져 있다. 다른 대륙으로 흑인 노예를 송출하던 나이지리아 알파 비치에서 가슴이 탁막혀버렸던 작가는 "저 수평선은 내가 본 선 중 가장 슬픈 선이었다"고 돌아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예술의 오랜 주제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한 일상의 부분인 동시에 일상을 넘어서는 영감을 줬다. '빨리빨리'라는 속도전 속에서 근시안이 되어버린 현대인에게 달과 수평선이 예술이 되어 손짓한다. 천천히, 멀리 보라고. 23일까지, 무료, 02-733-8945.

권근영 기자



## 3) NEWS DONGA (MAR 04 2014)

<http://news.donga.com/3/all/20140304/61416744/1>

뉴스 > 문화 > 미술 > 전시

### ‘나’를 잠시 내려놓고, 느릿느릿 고요한 풍경 속으로...

기사입력 2014-03-04 03:00:00 | 기사수정 2014-03-04 08:28:04



일상의 속도를 잊게하는 두 전시  
'달의 변주곡'전 & '하늘땅바다'전



느리게 흐르는 시간과 풍경으로 일상의 심표를 선명화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달의 변주곡'전에 나온 다비드 클라르바우트의 '여행'(위쪽)은 명상음악처럼 위안과 휴식을 주는 자연의 이미지를, '하늘땅바다'전에 등장한 크레마크 필시의 영상작품은 빛의 변화로 눈부신 풍경을 보여준다. 백남준아트센터 아트선재센터 제공

공원 벤치에서 출발한 여행은 오붓한 산책길과 계곡,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울창한 숲을 지나 초록 들판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막을 내린다.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12분 여정이 눈 감작하는 동안 금세 지나간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과 평화로운 풍경이 번잡한 마음을 정화해준다.

경기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의 '달의 변주곡'전에 등장한 벨기에 작가 다비드 클라르바우트의 영상 작품 '여행'이다. 명상음악이 주는 치유의 느낌을 비디오 작품으로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성공적이다.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풍경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데 실제로는 3년에 걸쳐 하나하나의 장면을 컴퓨터로 만든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선 속도의 압박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일상 탈출의 자유를 맛보게 하는 영상과 설치작품이 선보였다. 6월 29일까지, 4000원, 031-201-8571

자극적 양념은 빼고 심심한 맛이 매력적인 전시가 또 있다.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인, 오피스 아트, 원앤제이, 스케이프 등 서울 소격동 주변 6개 전시장에서 열리는 '하늘땅바다'전. 제목 그대로 자연 풍광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기회다. 23일까지.

## ○ 자연을 보는 여유

‘하늘땅바다’전에선 수평선, 지평선을 원 없이 보여준다. 호주 예술기관 MAPP(Media Art Asia Pacific)에서 기획한 전시로 호주에 이어 서울에 왔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선보인 네덜란드 작가 안 디베츠의 1970년대 초 작품 ‘Horizon’ 시리즈는 카메라 프레임을 기울여 만든 수직 수평 사선의 독특한 바다풍경으로 눈길을 끈다. 흔들리는 버티컬 블라인드에 밀려드는 파도의 영향을 투사한 대척 크래클로, 90여 개 선물이 밀집한 풍경을 해를 때부터 해질 녘까지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변화로 연출한 크레이크 월시 등 호주 작가의 작업이 주목된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을 보여주면서도 ‘달의 변주곡’전은 시간성에 대한 성찰을, ‘하늘땅바다’전은 공간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한다. 굳이 주제와 개념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삶의 속도를 점검하고 싶거나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고 싶을 때 둘러볼 만하다.

고미석 문화전문기자·논설위원 mskoh119@donga.com

### 4) CINE21 씨네 21 (MAR 03, 2014)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5998](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5998)

뉴스

[culture highway]

[culture highway] 김수현 가니 박유천 온다

Like

글 : 씨네21 취재팀 | 글 : 차우진 | 2014-03-03

Share it    |  

## 북촌 엔딩

북촌 곳곳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펼쳐진다. 호주 예술 기관 MAPP(Media Art Asia Pacific)가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등 북촌 일대 여섯곳의 갤러리와 함께 <하늘땅바다展>을 2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 선보인다.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15명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관람객이 전시장을 이동해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부터가 이미 공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된다. 고즈넉한 북촌 길을 누비는 재미도 빼놓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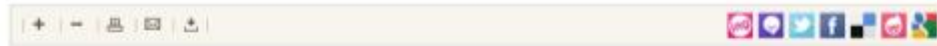
5) E-DAILY 이데일리 (FEB 28, 201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1551446605995112&DCD=A404&OutLnkChk=Y>

## 북촌에 가면 '수평선'이 보인다

입력시간 | 2014.02.28 09:13 | 김인구 기자 clark@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AD] "멀티솔루션 2주 사용 후.." 여배우 피부관리비결..충격!

서울 북촌 6개 갤러리 참여 '하늘땅바다' 전  
아트선재·스케이프·몹시스·원앤제이·이화익 등  
호주 MAAP와 공동 한·중·호 작가 20인 영상작품  
북촌 탐방하고 전시도 보는 이색체험



[이데일리 김인구 기자] "자, 갤러리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갤러리스케이프는 지나가면서 밖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은 몹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마지막에 아트선재센터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영상 7도 안팎, 따뜻하게 내리찍는 햇볕과 상쾌한 공기, 옛 궁궐과 미술관의 거리인 북촌을 걸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를 중심으로 팔판동·가회동 등에 퍼져 있는 6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투어 전시가 열렸다. '하늘땅바다' 전, 사립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진행하기에는 제법 스케일이 있다. 게다가 미디어 아트 아시아 퍼시픽(MAAP)이라는 호주의 아트프로젝트 지원기관이 합세했다. 제목만큼이나 글로벌하고 다채롭다.

이번 전시는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겸 큐레이터가 MAAP의 킴 메이첸 디렉터와 뜻이 통하면서 성사됐다. 한국·중국·호주의 3개국을 순회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예술가 20여명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상작품을 소개한다. 3월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중국 상하이(4~7월), 호주 브리즈번(9~11월)으로 이어진다.



얀 디베츠 "수평선 III"(사진=아트선재센터)

6개 갤러리의 중심격인 아트선재센터에선 얀 디베츠(네덜란드),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포르투갈), 김수자의 작품이 전시된다. 디베츠는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초창기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이번엔 '수평선 II'(1971)와 '수평선 III'(1971)를 선보인다. 바다 수평선인데 각도가 기울어 있다. 카메라 프레임을 일부러 조작한 결과다. 여러 각도의 수평선은 수평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한다.

파이바는 바다 위 부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강요된 공감'(2011)을 보여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화면을 보정해서 독특한 공간감각을 자아낸다. '보따리작가' 김수자는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로 수평선을 180도 전복한다. 식민지로 향하는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비치의 뒤집어진 수평선은 역사적 비극과 운명적인 공포를 투사하는 것 같다.



바바라 캠펠 '클로즈, 클로즈(close, close)'(사진=원앤제이갤러리)

다른 5곳 갤러리 전시도 면면이 무게감이 있다.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개인전을 준비 중인 정연두 작가는 이화익갤러리에 두 쪽의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수공기억' 연속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녹화된 기차길과 기차여행을 한 남자의 인터뷰다. 이미지와 이야기의 조합에서 여러 개 공간의 층을 깨달게 된다.

호주의 바바라 캠펠은 관객참여형의 영상을 선사한다. 전시장 한 벽면에 '클로즈, 클로즈'라는 영상이 흐르는데 가로줄로 된 일부분만 보인다. 전체를 보기 위해선 관객이 영상 앞에서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움직임에 따라 지평선 영상이 위아래로 움직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찍은 내용은 동아시아와 호주를 거치는 철새인 도요새의 여정이다. 마치 이번 전시의 순회 여정을 뜻하는 것 같다.

이밖에도 실파 굽타의 '인도 지도', 왕공신의 '탁구의 또 다른 규칙' 등은 신선한 자극을 준다. 관람은 무료다.

메이첸은 “처음엔 한 군데 갤러리에서 준비했으나 여의치 않았는데 김선정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6개 갤러리에 분산해 전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투어링 전시는 처음이지만 매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02-733-8945. <XML>

#### 6) HANKYOREH 한겨레 (FEB 28, 2014)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26286.html>



#### 6개 갤러리 연계 ‘하늘땅바다’ 전 국내외 15명 미디어 작가들 작품 갤러리마다 3개씩 나눠 전시해

아트선재센터를 중심으로 북촌 일대 6개 전시장에서 열리는 ‘하늘땅바다’전(3월23일까지)은 관객들에게 수평선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꼬드킨다. 꼬드김에 넘어가 관객이 된 사람들은 이화익갤러리, 아트선재센터,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스케이프, 갤러리인 등을 돌면서 족히 두 시간은 소비해야 한다. 꽃나무들이 망울을 터뜨릴 참이니 소풍 삼아 다녀도 좋겠다.

저녁때만 건물 외벽에 작품을 쏘는 갤러리스케이프를 빼면 전시장마다 미디어영상, 설치 작품 3개씩을 보여준다. 모두 수평선, 또는 수평선에서 확장된 것을 소재로 작가 고유의 사유를 펼쳤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술기관인 MAAP(Media Art Asia Pacific)에서 기획한 전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한국에 머물고 있다.

제목 삼은 하늘·땅·바다는 수평선을 구성하는 소재들이다. 어려서 수평선을 보고 자란 기획자인 MAAP 디렉터 킴 메이첸은 수평선을 소재로 한 전시를 제대로 꾸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기획이 현실이 되면서 만만찮은 내공의 작가들이 모였다.



동심원의 출발점은 아트선재이고 한복판에 네덜란드의 얀 디베츠가 놓여있다. 그는 카메라를 미술의 도구로 사용한 선구자다. 전시에서는 <호라이즌> 시리즈 3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1941년생인 디베츠의 <호라이즌>(1971)은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의 동영상'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도형화해 조합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으로 된 면을 기하학 단위로 하여 완성한 구성작품이다. 수평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리움, 소멸 등의 상투성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뒤집기는 김수자의 <보따리-나이지리아 알파비치>(2001·사진)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하늘과 바다로 양분된 화면을 뒤집었다. 디베츠에서 받은 충격 탓에 "애개개!" 하고 돌아선다면 실수다. 알파비치는 노예선의 항해가 시작된 곳. 백인과 흑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식민과 지배가 마주쳐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선'이 그어졌다. 작가는 무심한 듯 화면을 뒤집어놓았을 뿐이다.

포르투갈의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의 작품 <강요된 감정이입>(2011)은 홍콩 앞바다의 부표를 찍은 영상이다. 그는 컴퓨터를 조작해 부표를 화면 중앙에 고정시킨 다음 부표를 둘러싼 바다가 움직이도록 했다. 부표에 설치된 카메라로 육지를 배경으로 떠 있는 부표를 찍은 것 같다. 작가가 보여주는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서 이룬 평평하고 고요한 선이 아니라 바다와 땅이 만나서 산만하게 움직이는 선이다.

아트선재의 작품들이 개념적인 문제풀이라면 이후 5개의 갤러리에서 마주치게 될 작품들은 응용문제다.

크레이그 윌시는 서호주에 있는 원주민 성지 '무루중가'의 일출과 일몰을 찍었다. 뻗어어나온 선돌들이 어스름에서 점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모습이 장엄하다.<선돌지대>(2012), 옴시스아트) 바바라 캠벨이 도요새 도래지를 찍은 영상은 어떤가. 관객이 다가가면 화면을 가른 수평선이 상하로 이동하면서 도요새가 나는 하늘·땅·바다를 보여준다.<가까이, 가까이>(2014), 원앤제이) 로렌 브링켓은 그림과 영상의 경계를 고민한다. 그림처럼 정지된 활주로의 소실점 속으로 작가 자신이 걸어 들어가 소실하는 방식이다.<지금의 내일, 템펠호프>, 이화익갤러리) 폴 바이는 드릴처럼 생긴 나선형 풍경이 바람에 돌아가는 모습을 벽에 기댄 두 개의 스크린 판에 쓴다. 돌아가는 나선은 고정된 위치에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착각을 부르고, '벽과 스크린'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한다. <무제>(2013), 갤러리인)

한국 작가로는 정연두(<만들어진 기억>(2008)), 심철웅(<또다른 강>(2011))씨도 참여했다.

임종업 기자 blitz@hani.co.kr, 도판 MAAP 제공

7) SBS (FEB 28, 201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71525](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71525)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on the SBS website. The main headline is '수평선의 예술적 의미 탐구...하늘땅바다' (Exploring the artistic meaning of the horizon...heaven, earth, sea). The article is categorized under '문화' (Culture) and '가정' (Home). It features a video player with a play button and a progress bar. The text discusses the artistic meaning of the horizon and mentions an exhibition at the Art Museum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article is dated February 28, 2014.

8) MAGZINE JUNGLE 매거진 정글 (FEB 27, 2014)

[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detail\\_view.asp?pagenum=1&temptype=5&page=1&menu\\_idx=141&master\\_idx=15873&main\\_menu\\_idx=46&sub\\_menu\\_idx=47](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detail_view.asp?pagenum=1&temptype=5&page=1&menu_idx=141&master_idx=15873&main_menu_idx=46&sub_menu_idx=47)



The screenshot shows an article on the MAGZINE JUNGLE website. The main headline is 'LAND I SEA I SKY' (사이와 분리, 기억과 해석을 담은 비디오 아트). The article is categorized under '아트갤러리' (Art Gallery). It features a video player with a play button and a progress bar. The text discusses the artistic meaning of the horizon and mentions an exhibition at the Art Museum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article is dated February 27, 2014.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 이를 평면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역동적인 움직임, 이를 평면 안에서 좀 더 사실감 넘치도록 2D가 전달하는 공간감에 만족할 수 없어 3D, 더 나아가 4D를 찾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업을 영상으로 출력하는 대부분의 비디오 아트 작가들 또한 플랫폼 화면을 채널로, 다양한 작품을 이에 담아낸다. 비교적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고 평평한 디스플레이 안에서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공간성을 발현하는 것일까?

관객들로 하여금 화면 안의 이야기에 집중하되, 바깥쪽의 시선까지 요구하는 이들의 견해에 우리는 백프로 공감하며 4D이상의 공간감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 복백구성의 원근법, 버티컬의 흔들림으로 역동적인 장면의 과거 사진작품(Big wave hunting 1903)을 재구성하는 비디오. 대렉 크렉클러(Derek Kreckler) 'Littoral' 2014

동시대 비디오 아트 작가들의 작업을 한 곳에서, 더 정확히는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는 호주 미디어 아트 기관에서 마련했다. 전시를 기획한 호주 MAAP의 디렉터 킴 메이첸(Kim Machan)은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아트 발전 속도에 주목한 이번 전시는 비디오 아트의 현재를 아시아 2개국인,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순회를 할 예정으로 전시가 마무리되면 이를 기록해 새로운 미디어 아트의 산물(Publication)을 낼 것이다”고 전했다.



▶ 정연두(Yeondoo Jung) 'Handmade Memories' On the Dividing Line between Body and Soul 2008

전시의 구성은 총 20여명의 비디오 아트 작가들이 북촌일대의 6개의 전시공간(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 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타이틀에 담긴 '하늘땅바다'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하는 3가지 자연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 줄의 선(경계)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복합적으로 표현해내는 작가들의 작업 방식을 총칭하는 한 단어이자, 이는 곧 의미가 됨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의 정연두와 호주의 로렌 브린캣(Lauren Brincat), 인도의 실파 굽타(Shilpa Gupta)의 작품이 한 공간 안에 담긴 이화익 갤러리에는 기억과 환기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담은 영상, 3작품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타인의 기억을 해석하고 대변하는 사진과 영상을 선보여왔던 정연두는 한 화면에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보여줘 오로지 주관적으로 남아있는 타인이 기억하는 공간에 말을 건넨다. 이와 동시에 타인의 기억을 실시간 무대장치로 제시하며, 또다른 공간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로렌 브린캣(Lauren Brincat) 'This Time Tomorrow, Tempelhof' 2011

로렌 브린캣은 과거 냉전시대 활용됐던 베를린의 활주로를 배경으로 작가 자신의 걷는 모습을 작품 안에서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보여준다. 현재는 유희공간이 되버린 냉전시대의 산물을 작가 자신이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간을 통해 역사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실파 굽타는 인도 국민 100명이 자의식으로 그린 국경을 통해 개인의 사고방식과 인식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의 기억이 민족주의 국가와 맺는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는, 역시 타인의 기억들을 소재로 국가 정체성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분명 같은 공간을 표현하지만, 개인의 해석과 묘사가 들어가 복잡해지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낸다.







9) HANKYOREH 한겨레(FEB 27, 2014)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26141.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26141.html)

문화  
문화일반

## 도심으로 떠나는 '수평선' 산책

등록 : 2014.02.27 19:53

크기 + - | 스크랩 | 신고 | 인쇄 | 0 | 1 | 보내기



김수자의 <보따리-나이지리아 알파비치>(2001)

### 6개 갤러리 연계 '하늘땅바다' 전 국내외 15명 미디어 작가들 작품 갤러리마다 3개씩 나눠 전시해

서울 한복판에서 수평선이라.

아트선재센터를 중심으로 북촌 일대 6개 전시장에서 열리는 '하늘땅바다'전(3월23일까지)은 관객들에게 수평선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꼬드긴다. 꼬드김에 넘어가 관객이 된 사람들은 이화익갤러리, 아트선재센터,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스케이프, 갤러리인 등을 돌면서 족히 두 시간은 소비해야 한다. 꽃나무들이 망울을 터뜨릴 참이니 소풍 삼아 다녀도 좋겠다.

저녁때만 건물 외벽에 작품을 쏘는 갤러리스케이프를 빼면 전시장마다 미디어영상, 설치 작품 3개씩을 보여준다. 모두 수평선, 또는 수평선에서 확장된 것을 소재로 작가 고유의 사유를 펼쳤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술기관인 MAAP(Media Art Asia Pacific)에서 기획한 전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한국에 머물고 있다.

제목 삼은 하늘·땅·바다는 수평선을 구성하는 소재들이다. 어려서 수평선을 보고 자란 기획자인 MAAP 디렉터 킴 메이첸은 수평선을 소재로 한 전시를 제대로 꾸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기획이 현실이 되면서 만만찮은 내공의 작가들이 모였다.

동심원의 출발점은 아트선재이고 한복판에 네덜란드의 얀 디베츠가 놓여있다. 그는 카메라를 미술의 도구로 사용한 선구자다. 전시에서는 <호라이즌> 시리즈 3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1941년생인 디베츠의 <호라이즌>(1971)은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의 동영상'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도형화해 조합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으로 된 면을 기하학 단위로 하여 완성한 구성작품이다. 수평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리움, 소멸 등의 상투성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뒤집기는 김수자의 <보따리-나이저리아 알파비치>(2001·사진)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하늘과 바다로 양분된 화면을 뒤집었다. 디베츠에서 받은 충격 탓에 "애개개!" 하고 돌아선다면 실수다. 알파비치는 노예선의 항해가 시작된 곳. 백인과 흑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식민과 지배가 마주쳐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선'이 그어졌다. 작가는 무심한 듯 화면을 뒤집어놓았을 뿐이다.

포르투갈의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의 작품 <강요된 감정이입>(2011)은 홍콩 앞바다의 부표를 찍은 영상이다. 그는 컴퓨터를 조작해 부표를 화면 중앙에 고정시킨 다음 부표를 둘러싼 바다가 움직이도록 했다. 부표에 설치된 카메라로 육지를 배경으로 떠 있는 부표를 찍은 것 같다. 작가가 보여주는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서 이룬 평평하고 고요한 선이 아니라 바다와 땅이 만나서 산만하게 움직이는 선이다.

아트선재의 작품들이 개념적인 문제풀이라면 이후 5개의 갤러리에서 마주치게 될 작품들은 응용문제다.

크레이그 윌시는 서호주에 있는 원주민 성지 '무루중가'의 일출과 일몰을 찍었다. 뼈죽뼈죽 튀어나온 선돌들이 어스름에서 점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모습이 장엄하다.<<선돌지대>(2012), 오피스아트) 바바라 캠벨이 도요새 도래지를 찍은 영상은 어떤가. 관객이 다가가면 화면을 가른 수평선이 상하로 이동하면서 도요새가 나는 하늘·땅·바다를 보여준다.<<가까이, 가까이>(2014), 원앤제이) 로렌 브랑켓은 그림과 영상의 경계를 고민한다. 그림처럼 정지된 활주로의 소실점 속으로 작가 자신이 걸어 들어가 소실하는 방식이다.<<지금의 내일, 템펠호프>, 이화익갤러리) 폴 바이는 드릴처럼 생긴 나선형 풍경이 바람에 돌아가는 모습을 벽에 기댄 두 개의 스크린 판에 쏜다. 돌아가는 나선은 고정된 위치에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착각을 부르고, '벽과 스크린'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한다. <<무제>(2013), 갤러리인)

한국 작가로는 정연두(<만들어진 기억>(2008)), 심철웅(<또다른 강>(2011))씨도 참여했다.

임종업 기자 blitz@hani.co.kr, 도판 MAAP 제공

## 시간공간의 재해석 ... 같은 듯 다른 시선

- 백남준아트센터 '달의 변주곡'전  
달의 변화 모습 TV 12대로 보여줘
- 6개 갤러리 연계 '하늘 땅 바다'전  
기존 육해공 이미지 뒤집고 비틀어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입력시간 : 2014.02.27 18:52:11 수정시간 : 2014.02.27 19:52:11



다비드 클라르바우트의 영상 작품 '정유 노동자' / 사진제공=백남준아트센터

시간과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연의 섭리지만, 동시에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변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현대작가들이 각각 절대적인 시간과 하늘·땅·바다라는 공간을 주제로 새롭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변주한 [전시](#)들이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시간 예술을 공유하는 '달의 변주곡'을 올해의 첫 기획전으로 내놓았다. 시간 개념을 독특하게 사유하거나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작가 7인의 작품을 모은 전시로,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린다. 모티브가 된 작품은 백남준의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년 뉴욕 보노노 갤러리에서 처음 선보인 이 작품은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이 변하는 모습을 12대의 TV로 보여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한 순간에 집약시킨 이 작품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유목민이었던 작가의 생애를 드러낸다.



벨기에 작가 다비드 클라르바우트는 사진 속 정지된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일터에서 돌아오다 폭우에 발이 묶인 (나이지리아 웰 사) 정유 노동자'라는 작품에서 작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사진 속 노동자들을 3D로 만든 뒤 그와 체형이 비슷한 사람들을 사진과 동일하게 만든 세트 안에서 포즈를 잡게 하고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사진을 다시 3D에 입혀 원본에 없었던 측면, 뒷면의 모습까지 모두 얻어냈다. 사진 속에서 멈췄던 시간이 [영상](#) 속에서 다시 살아나 당시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다리 밑에서 노렸을 지루한 시간 속으로 관객들을 끌어 당긴다. 일본 미디어 아티스트 구와쿠보 료타는 기계의 시간에 주목한다. 작가는 100엔승에서 산 싸구려 물건을 예를 들어 바꾸니, 연필, 삼각자, 백열등 등을 바닥에 늘어놓은 뒤 그 사이로 레일을 깔고 LED [조명](#)을 단 작은 기차가 달리도록 했다. 조명이 물건을 비출 때마다 벽에는 실제 물건 크기의 10배가 넘는 [비대](#)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계 초침이 헬리콥터 날개가 되고 파일 [바인더](#)가 교각이 되는 역동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티스트 구와쿠보 료타는 기계의 시간에 주목한다. 작가는 100엔승에서 산 싸구려 물건을 예를 들어 바꾸니, 연필, 삼각자, 백열등 등을 바닥에 늘어놓은 뒤 그 사이로 레일을 깔고 LED [조명](#)을 단 작은 기차가 달리도록 했다. 조명이 물건을 비출 때마다 벽에는 실제 물건 크기의 10배가 넘는 [비대](#)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계 초침이 헬리콥터 날개가 되고 파일 [바인더](#)가 교각이 되는 역동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이미지](#)를 뒤집고 비틀어 공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특별한 전시도 선보였다. 아트선재센터,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인, 갤러리스케이프 등 북촌의 6개 갤러리가 뜻을 모아 오는 3월 23일까지 펼쳐는 '하늘 땅 바다'전이다. [호주](#) MAAP(Media Art Asia Pacific) 디렉터 킴 메이첸이 기획을 맡았으며 국내외 작가 15명의 작품을 북촌의 공간에 나눠 설치했다.

아트선재센터에는 푸른 바다와 하늘을 담은 작가 3명의 미디어영상이 한 공간에 설치돼 있다. 네덜란드 출신 안 디베츠는 '수평선' 시리즈에서 가로의 수평선을 여러 각도로 촬영해 사선으로 전환시켰다.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는 하늘을 바다 위가 아닌 아래로, 수평선을 정반대 방향으로 전복시켜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나이지리아 알파 비치의 뒤집힌 수평선을 통해 역사와 문명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포르투갈 출신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의 '강요된 공감'은 바다 위 부표의 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보정한 작업이다.

이화익갤러리의 전시작 중 로라 브림켓의 작품은 작가가 베를린의 폐쇄된 공항 활주로를 따라 지평선 끝까지 걷는 [퍼포먼스](#)를 담고 있다. 옴시스아트에 설치된 크레이크 월시의 [일흔](#)과 일흔 영상은 96개의 선들이 늘어선 호주에서 촬영했다. 순회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4~7월에는 [중국](#) 상하이, 9~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문화

##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陸·海·空

기사본문

SNS댓글 쓰기



CAR VS CAR 자동차 설문조사 이벤트

입력 2014-02-25 20:42:34 | 수정 2014-02-26 05:32:27 | 2014-02-26 A36면



### 3월 23일까지 '하늘 땅 바다'展

공간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 요소인 하늘과 땅, 바다의 삼각관계는 각각의 문화권이나 작가가 세상을 파악하는 고유한 태도를 보여준다.

서울 소격동 일대 북촌의 6개 화랑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리는 '하늘 땅 바다(海陸空)'전은 이런 다양한 공간 해석태도를 국내외의 대표적 미디어 아티스트 15명의 작품을 통해 조망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지원 기관인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북촌문화벨트의 미술관과 화랑들이 하나의 테마를 공유하며 저마다 공간적 개성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호아오 바스코 피아바의 '갈릴레오의 공간'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 중인 안 디베츠의 '수평선 II'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인 수평선에 대한 고찰관념을 바꿔놓는다. 움직이지 않는 땅 위에서 바라본 수평선은 가시적이고 불변하는 물질세계를 보여주지만 움직이는 배 위(물 위)에서 바라본 수평선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극단적인 불안정의 대상일 뿐이다.

웁시스아트에 출품된 조반니 오졸라의 '당신은 때때로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공간에 수시로 개입하는 빛의 상관성을 탐색한다. 수평선을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모습을 드러낸 잔잔한 바다 풍경은 영상 중간에 오르내리는 서터라는 존재를 통해 창밖과 실내라는 또 다른 공간의 층위를 일깨워준다.



실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 UNSW 를 선택 했습니다. 아시아(호주)

이화익갤러리 1층에서 촬영 중인 정연두의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는 탑골공원에서 만난 한 노인의 기억을 복원하는 모습과 그것을 재해석한 무대 위 기차길의 영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노인은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기차길에서 재결합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연인의 배신으로 노인에게 그곳은 뼈아픈 기억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기차길 너머와 현실의 기차길은 과거와 현재를 의미하는 영육의 갈림길이 된 셈이다. 이밖에 갤러리 스케이프, 원제이제이갤러리, 갤러리 IHN에서도 비디오 설치 작품이 상연된다.

공연·전시
스크랩
들러보기
프린트
크게
작게

[문화]
계재 일자 : 2014년 02월 25일(火)

# 비틀고 뒤집은 '하늘과 바다'

## 서울 북촌 6개 전시장서 작가 15명 '하늘따바다'展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을 45도 각도로 틀고, 아예 하늘을 바다 아래로 뒤집었다. 활주로에서 지평선 끝까지 걸어가는 퍼포먼스, 철새들의 움직임을 따라 지평선을 추적한 작품도 있다.

수평선 혹은 지평선을 주목한 국내외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서울 북촌의 6개 전시공간에서 한데 모였다. 아트선재센터,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인, 갤러리스케이프에서 오는 3월 23일까지 열리는 '하늘따바다'전이다. 호주 MAAP(Media Art Asia Pacific) 디렉터 킴 매이첸이 기획을 맡았다. 작가 15명의 작품을 북촌의 공간에 나눠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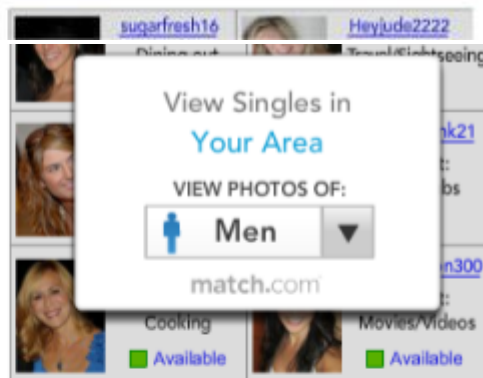
관람객들은 북촌 투어를 하듯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의 전시장별로 작가 2~3명의 영상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작은 대부분 바다 풍경을 담은 영상물이다. 전시공간별로 각기 다른 분위기에 맞춘 작가 선정과 설치가 돋보인다.

아트선재센터 전시는 이번 기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푸른 바다와 하늘을 담은 작가 3명의 미디어영상이 한 공간에 설치돼 있다. 네덜란드 출신 안 디베츠는 '수평선' 시리즈에서 가로의 수평선을 여러 각도로 **흔들**어 사선으로 전환시켰다.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사진)는 하늘을 바다 위가 아닌 아래로, 수평선을 180도 전복시켰다. 노예선 출발지였던 나이지리아 알파 비치의 뒤집힌 수평선을 통해 역사와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극을 표현했다. 한편 포르투갈 출신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의 '강요된 **공간**'은 바다 위 부표의 **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보정한 작업이다.

원앤제이갤러리 1층의 데렉 크래클러의 작품에선 선풍기 **바람**에 일렁이는 흰 버티컬의 위와 뒤쪽 벽면에 비치는 고요한 바다와 거센 파도의 영상이 대조를 이루며 동(動)과 정(靜)이 교차한다. 바버라 캠펔은 철새들의 이동에 따라 관객에게 색다른 시각 경험을 제공하는 '클로스 클로스'를, 왕평은 화면 반쪽은 공백인 채 나머지 절반의 화면에 평양에서 촬영한 작품을 어울려냈다.

이화익갤러리의 전시작 중 로라 브린캣의 작품은 작가가 베를린의 폐쇄된 공항 활주로를 따라 지평선 끝까지 걷는 퍼포먼스를 담고 있다. 또 옴시스아트에 설치된 크레이크 월시의 일출과 일몰 영상은 96개의 선물이 늘어선 호주에서 촬영했다. 두 작품은 갤러리스케이프 2층 창문에서 오후 6~10시에 상영된다.

갤러리인에는 폴 바이, 하이모 초베르니히, 왕공신의 작품이, 옴시스아트에는 심철웅, 지오바니 오졸라의 작품이 전시중이다.



13) YTN NEWS (FEB 25, 2014)

[http://www.ytn.co.kr/\\_ln/0106\\_201402252250247381](http://www.ytn.co.kr/_ln/0106_201402252250247381)

## 국내외 작가들 '따로 또 같이' 전시회



[앵커]

호주와 우리나라 작가들이 '하늘 땅 바다'를 주제로 사진과 영상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따로 또 같이' 전시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북촌의 갤러리 6곳에서 이 전시회를 함께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계로 쓰고, 입으로 뱉어내고, 삼으로 내리치려는 탁구공.

중국 작가 왕공신 Wang Gongxin은 이렇게 흰 구체가 어느 쪽으로 튕겨 나갈지 가늠하기 힘든 장면을 보여줍니다.

폴 바이 Paul Bai는 널판지 두 장에 투사된 붉은 나선형 물체의 움직임에서 공간과 시간의 본질을 묻습니다.

근처의 다른 갤러리에서는 호주 원주민 주거 지역의 암석을 찍은 크레그 월시 Craig Walsh의 사진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크레그 월시, 호주 작가]

"일출 시간의 하늘과 석양에 비친 바위를 한 사진 안에서 병렬배치했습니다. 이 풍경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juxtapose the sun rise on the sky with sunset on the rocks. so it's a time shift which is in opposition with the way we view it, but it enhances its significance.)

역시 호주 작가인 데레크 크레클러 Derek Kreckler는 바다 연안을 찍은 흑백 비디오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육지와 먼 바다 사이에 있는 연안은 작가에게 변화의 상징입니다.

[인터뷰:데레크 크레클러, 호주 작가]

"연안은 항상 변하고 움직입니다. 바다의 시적 부위라고 할 수 있죠."

(it always changes, always moves. so, in a sense it's kind of a literally as if it were poetic littoral of that part of the ocean.)

또 다른 갤러리에 폐쇄된 활주로를 작가 스스로 걷는 모습을 찍은 로렌 브린캣 Lauren Brincat의 비디오 작품이 걸렸습니다.

공항이 품은 역사를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인터뷰:로렌 브린캣, 호주 작가]

"다소 우울한 장소입니다만 저는 이 공항이 품은 매우 어두운 역사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읽어내고 싶습니다."

(It's quite melancholic, but I like to think of it as a positive kind of energy with very lurid history this airport has.)

이밖에도 네덜란드 안 디베츠와 오스트리아 작가 헤이모 조베르니그, 국내 작가 김수자, 심철웅 등 국내외 작가 15명이 서울 북촌 일대 갤러리와 미술관 등 6곳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은 모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경 3백 미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의 별명을 '따로 또 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의 미디어아트 기획 기관인 맵 MAPP(Media Art Asia Pacific)과 아트선재센터가 함께 마련한 '하늘 땅 바다'전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열린 뒤 상하이와 호주 브리즈번에서도 잇달아 순회전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14) SEGYE 세계일보 (FEB 25, 20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25/20140225005134.html?OutUrl=naver>

문화 미술.전시 입력 2014-02-25 22:30:14, 수정 2014-02-25 22:30:14

## 경계 가르는 다양한 공간 성찰

아트선재센터, 인근 갤러리 5곳과 함께  
3월 23일까지 '하늘땅바다' 미디어展

비디오영상 작품을 보면 영화 등 오락영상물이 판치는 시대에 어떤 설 자리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다. 완성도는 차치하더라도 객기만 부린 듯한 작품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장르 확장 차원에서 어설픈 '실험'을 내뱉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문명한 역할이 있다.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오락 영상물과 달리 능동적인 성찰이 담겨 있어서다.

3월 23일까지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와 인근 5개 갤러리(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에서 열리는 미디어 전시 '하늘땅바다'는 하늘과 땅, 땅과 바다,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지평선(혹은 수평선)에 대한 여러 나라 작가들의 공간해석을 엮을 수 있는 자리다. 호주의 예술 기관인 MAPP(Media Art Asia Pacific)와 함께 여는 한국과 중국, 호주 3개국 순회전이다.



안 디배초의 'Horizon III -sea2'



전시에는 카메라를 동시대 미술제작의 도구로 사용한 초창기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얀 디베츠(네덜란드)를 비롯해 바버라 캠펔(호주), 헤이모 조베르니그(오스트리아) 등 해외 작가들과 국내 작가 김수자, 정연두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수평선은 그 너머의 세계를 환기시켜 주는 공간이자 글로벌로 나아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때론 무작정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치유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면이나 수면을 가르는 하나의 선에 불과한 듯 보였던 경계에 대한 작가들의 고찰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4~7월에는 중국 상하이, 9~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02)733-8948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 15) HERALD NEWS 헤럴드 경제 (FEB 24, 20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4000591&md=20140227005129\\_BC](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4000591&md=20140227005129_BC)

라이프  
미술관

슬픈 수평선

기사입력 2014-02-24 11:03
가 + | 가 - |

헤럴드 팟캐스트 바로가기

하나의 전시를 위해 여섯 개 갤러리가 뭉쳤다. 갤러리인 갤러리 스케이프, 옴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그리고 아트선재센터는 22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하늘땅바다(LANDSEASKY)'전을 연다. 다수의 상업 갤러리가 한 전시를 연계해서 개최하는, 이례적 이벤트다. 2013년 '아시아의 호주 예술상'을 받은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했다.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4월 19일~7월 20일)를 거쳐 호주 브리즈번(9월 18일~11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순회 전시다.

주심평은산부인과 전문  
송씨중은산부인과원에서  
여성행복 찾기!!  
산부인과 전문의 윤호주  
의료상담  
제 130121-승-3024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3-3 미소빌딩6층  
당구장역 4번출구

이번 전시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헤이모 조베르니그(56·오스트리아), 얀 디베츠(73·네덜란드), 데렉 크랙클러(62·호주), 왕평(50·중국) 등 해외 작가들과 김수자(57), 정연두(45) 한국 작가까지 20여명의 비디오아티스트가 참여했다. 모든 작품은 전시 제목인 '하늘땅바다', 즉 수평선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를 담았다. 예술가들은 수평선을 놓고 인간의 지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태를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김수자 '모든-알타 비치 나이지리아' 상을해날 비디오, 2001.

[사진제공=MAAP, 호주]

TV나 스마트폰 등 일방향적인 영상매체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이들의 작품은 한편 심심하고 어렵기까지 하다. 크로마키(Chroma-key·특정 색을 빼버리고 다른 배경을 합성시키는 비디오 기술)를 활용한 헤이모 조베르니그의 '무제'는 6개 스크린을 엮갈리게 중첩한 뒤 영상을 투사한다. 영상 속 인물은 그 안에서 스크린을 설치하며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우리 앞에 가져온다. 초창기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안 디베초의 '수평선' 시리즈도 한자리에 모였다. 김수자는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를 선보였다. 흑인 노예를 송출하던 나이지리아 알파 해변을 촬영한 이 작품은 위아래가 뒤집어진 수평선이다. 작가가 "지금까지 본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선"이라고 말한 알파 해변은 노예무역의 아픈 역사를 담고도 묵묵하고 고요하다.

전시를 기획한 MAAP의 킴 메이첸 디렉터는 "갤러리와 갤러리를 이동하는 사이, 그 짧은 거리까지 전시의 연장선상이 됐다. 관람객의 사유를 도울 수 있는 장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HERALD MAGAZINE 헤럴드 고품격 프리미엄 매거진

이한빛 기자/vicky@heraldcorp.com

16) KYUNGHYANG SHINMUN 경향신문 (FEB 24, 2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42385&code=96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42385&code=960202)

**문화**  
미술·건축

**북촌 길 8개국 미디어 아트를 만난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입력 : 2014-02-24 21:42:38 | 수정 : 2014-02-24 21:42:38

글자크기 + -

이 기사 어떻게?
 

재밌네요
 유익해요
 문물해요
 황당해요
 쓸쓸해요

 How to

댓글

더보기

- '하늘땅바다' 서울전 15명 참여
- 6개 전시장서 내달 23일까지

미술관, 갤러리가 밀집한 북촌 일대에서 미디어 아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미디어 아트 작가 15명이 한꺼번에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지원·기획하는 기관인 호주의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이 전시는 지난 22일 아트선재센터와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오피스아트, 갤러리 스케이프, 갤러리 인 등 6곳에서 개막했다. 관람객들은 전시공간을 옮겨 다니며 감상하는 와중에 북촌 골목길을 느긋하게 산책할 수 있다.

한국의 김수자·심철웅·정연두를 비롯해 8개국 작가가 참여한 '하늘땅바다(LANDSEASKY)'전은 수평선·지평선을 소재로 실제 공간, 비디오 영상 속의 공간 등 공간성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탐구 결과를 보여준다. 수평선(지평선)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이지만 작가들은 갖가지 효과를 노리는 화면문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낸다. 어떤 작가는 인간의 지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작가는 영상의 기술적 재구성·변형으로 실재와 환영의 문제를 드러낸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람과 국가를 가르는 높다란 벽으로 보여지기도, 인간 존재에 대한 명상적 사유나 사건의 환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기획에 단초를 준 작가이자 자연**풍경**을 기하학적 추상으로 변형시킨 사진작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얀 디베츠(73)는 미디어 아트사의 초기 걸작으로 평가받는 '수평선' 연작을 통해 작가의 관점과 카메라의 각도 등에 따라 수평선이 얼마나 다른 공간적 효과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에는 1971년작 '수평선' 3점이 모두 나왔다.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버치 나이지리아', 1채널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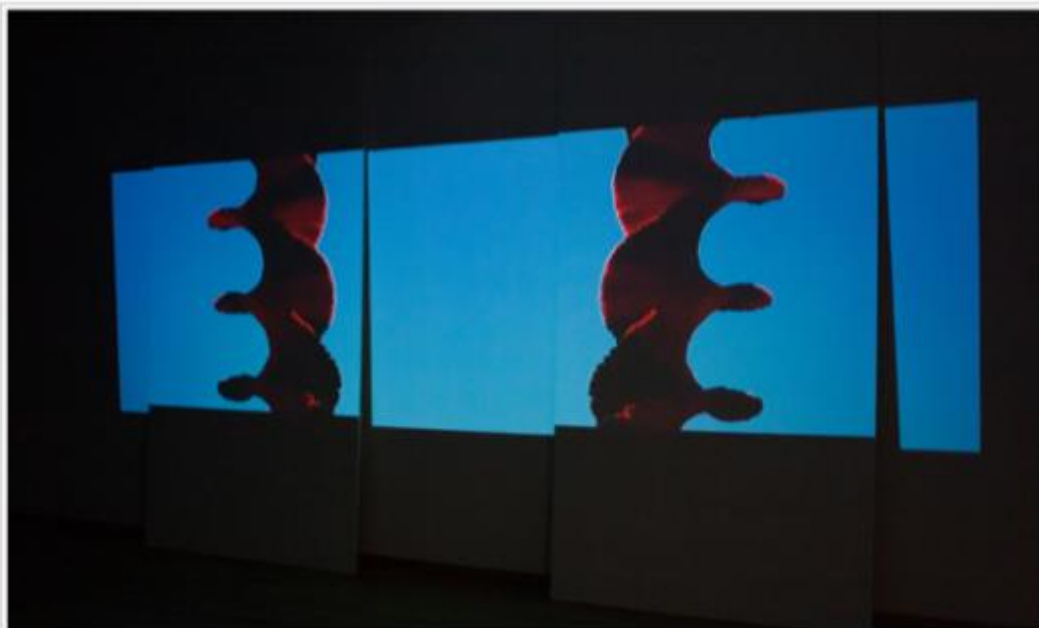
로렌 브린캣의 'This Time Tomorrow, Tempelhof', 1채널비디오 등.



데릭 크레콜러의 'Littoral', 1채널비디오·버티컬·선풍기 등.



바바라 켈렐의 'Close, close', 1채널 반응센서 비디오 등.



몰배의 '무제', 1채널비디오 등.

김수자(57)는 나이지리아 알파 해변에서 본 수평선을 다룬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년)에서 하늘과 바다가 뒤집힌 수평선을 표현했다. 식민지 시기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해변이 지닌 잔혹한 역사를 담아낸 것이다. "내가 본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선이었다"는 그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알파 해변 수평선에 녹여냄으로써 관객의 인식 확장은 물론 장소·풍경을 개념적으로 재탄생시킨다.

인도의 실파 굽타(38)는 100명의 인도인에게 각자 생각하는 인도 지도를 그리게 했다. 이들이 그린 모두 다른 형태의 지도를 통해 작가는 공간 묘사와 해석의 복잡성, 정치적 국경이나 민족국가의 정체성 등을 생각하게 만든다. 크레이크 월시(48)는 호주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4만년 전의 선물 유적지인 무주루가의 일출 일몰을, 로렌 브린켓(34)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 공수작전 현장인 템펠호프공항 활주로에서의 [퍼포먼스](#) 영상을 담아 특정 공간에 퇴적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한다.

심철웅(56)은 영상 위쪽에는 거꾸로 된 도심 빌딩숲 이미지를, 아래쪽에는 한강변의 물결 치는 강물을 한 화면에 담아 대비시킨 '또 하나의 강'을 내놓았고, 정연두(45)는 타인의 기억을 대변·해석하는 특유의 2채널 작품 '수공기억' 연작의 하나인 '수공기억-영과 육의 갈림길에서'(2008년)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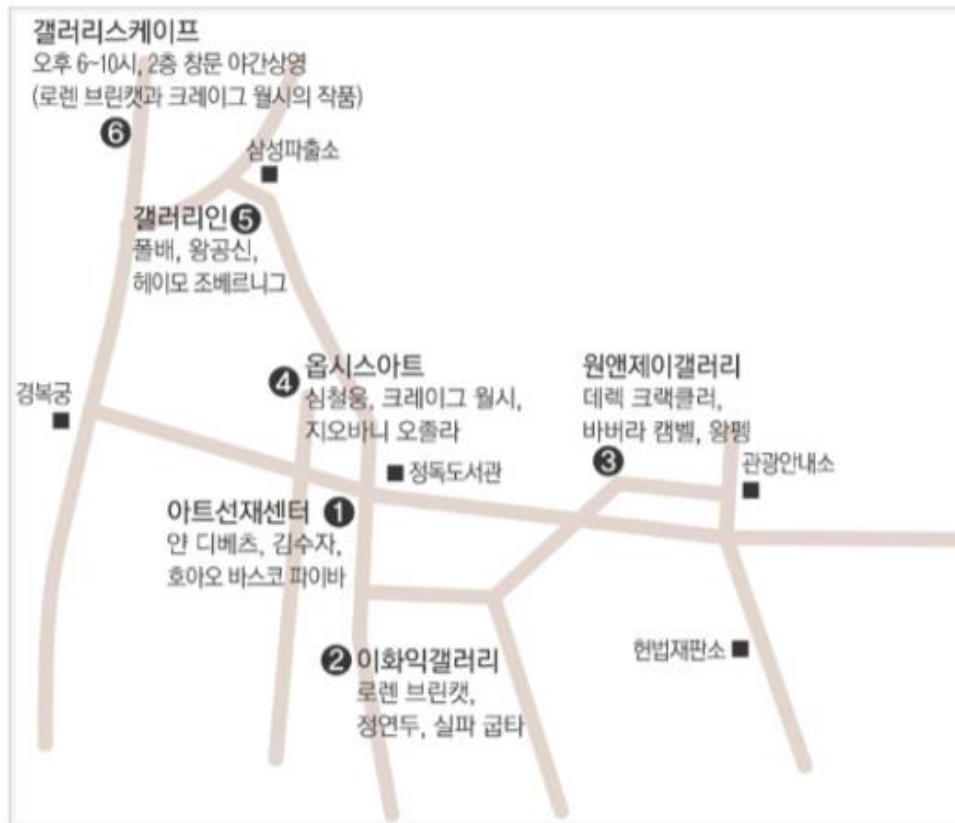
## 1 tip of a tiny belly



Cut down a  
bit of your  
belly every  
day by simply

전시장 사정상 6개 공간으로 나뉜 전시에 대해 기획자인 MAAP디렉터 김 메이첸은 "오히려 흥미로운 대안이 나왔다"며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걸어 이동하는 거리가 전시의 연장선장에 놓이게 돼 관람객의 사유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늘땅바다'전은 서울에 이어 중국 상하이(4~7월), 호주 브리즈번(9~11월)으로 순회한다. 3월23일까지.





17) HANKOOK ILBO 한국일보(FEB 24, 2014)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402/h2014022422093884310.htm>

## 수평선·지평선의 광활한 변주가 펼쳐진다

■ 북촌 6개 갤러리 미디어아트 전시회 '하늘말바다'  
 카메라 프레임 조작... 여러 각도 수평선 보여 주고  
 180도 뒤집힘 통해 희망의 비극 전환 포착  
 윤작가 빛 변화 기록한 디지털 해니 작업 눈길도  
 20여명의 영상작품 소개

황수현기자 sooh@hk.co.kr  
 입력시간 : 2014. 02. 24 22:09:38



네덜란드 작가 안 디베츠가 평평한 스크린에 카메라 프레임을 조작하여 여러 각도의 수평선을 촬영했다. 수평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수평선 III - sea I', 싱글채널 비디오, 1971. MAAP 제공

아트선재센터를 비롯한 북촌 일대 갤러리들이 [미디어아트 전시](#) '하늘땅바다'를 동시에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호주](#) 미디어아트아시아퍼시픽(MAAP)의 순회전으로 한국, [중국](#), 호주 3개국을 돌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예술가 20여명의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등 6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전시의 제목인 '하늘땅바다(LANDSEASKY)'는 수평선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수평선은 가장 단순하게는 평면이나 지면을 가로지르는 한 줄의 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평선을 통해 예술과 삶에 있어서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한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안 디베츠와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 그리고 김수자의 작업을 전시한다. 네덜란드의 개념미술가 안 디베츠는 미디어아트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수평선II'(1971)과 '수평선 III'(1971)는 평평하고 추상적인 [스크린](#) 공간에 작가가 카메라 프레임을 조작하며 [촬영](#)한 여러 각도의 수평선을 보여줌으로써 수평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김수자는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에서 수평선을 180도 전환해 보여준다. 식민 [지리](#) 향하는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비치의 뒤집어진 수평선은 역사와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대신 공포와 비극을 투사하는 장소가 된다.

옴시스아트에 작품을 전시한 호주 작가 크레이크 월시는 자신이 경험한 환경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작업한다.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버럽 반도에 무루주가라고 부르는 매우 특별한 지역이 있다.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곳에는 96개의 선물이 밀집해 있다. 월시는 하루 양극단의 시간인 [일출](#)과 일몰에 바위의 형상들을 가로지르는 빛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것을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통해 부드럽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이화익갤러리는 인도의 실파 굽타, 호주의 로렌 브린켓, 정연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정연두는 타인의 기억을 대변하고 해석하여 구성한 사진과 비디오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스틸 이미지나 동영상은 수작업으로 공들여 만든 [무대](#)를 보여주는데 이 무대 장치들은 작품의 주제, 사건들과 무대 배경에 대한 기억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한다. 전시에 나온 작품은 두 쪽의 영상물로 '수공 기억' 연속 시리즈 중 하나다. 하나의 모니터에선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 어른신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모니터에서는 미리 녹화된 기차길 장면이 연출된 환경 위에 놓인다. 우리는 점차 이미지와 이야기의 조합 안에서 여러 개의 공간의 층을 깨달게 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여섯 곳을 옮겨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각 전시장 작품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적 '사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8) NEWS1 뉴스 1 (FEB 23, 2014)

<http://news1.kr/articles/1553917>

## [미술관산책] 아트선재센터 '하늘땅바다'展

지평선을 통해 보는 현대미술작가들의 성찰

(서울=뉴스1) 엄지은 기자  
입력 2014.02.23 14:05:49

트윗 0

좋아요 1



안디베츠Horizon III-seal(1971)(아트선재센터 제공)©News1

(서울=뉴스1) 엄지은 기자 = 아트선재센터(관장 정희자)가 삼청동 일대 갤러리와 함께 국제 현대 미술작가들이 참여하는 순회 전시 '하늘땅바다'전을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선보인다.

전시에는 안디 베츠, 김수자, 호아오 바스코 파이드 등 한국과 호주, 중국, 인도의 동시대 작가 20여명과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옵시스 아트, 갤러리 스케이프, 갤러리 인 등 6개의 갤러리가 참여했다.

작가들의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다양한 경계들이 변주돼 드러나는 장소인 지평선은 '하늘땅바다'의 3개 요소로 표현됐다.

문치있는 삼청동 골목을 따라 걸으며 각기 다른 분위기의 갤러리를 순회하는 감상 동선은 전시의 또 다른 공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관람객은 여섯 곳의 전시장을 옮겨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각각의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적 '사이'를 경험하게 된다.

전시 제목인 '하늘땅바다'는 지평선과 수평선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선이나 평면으로 나타나 경계로서의 풍경을 가능하게 한다. 지평선을 통해 예술과 삶에 있어서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한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 인은 폴 바이(호주), 왕공신(중국), 헤이모 조베르니그(오스트리아)의 작품을 전시했다.

폴 바이는 나선형의 풍경을 깊은 고찰과 조화의 이미지로써 제시했다. 이미지는 벽에 기대어진 두 장의 널빤지에 의해 분리되며 영상 공간을 갤러리의 물리적 공간 안으로 끌어 들인다.

황공신은 두 개의 벽에 동시 투사되는 영상과 하나의 모니터로 이뤄진 가상의 탁구게임을 화면에 담았다. 공간은 인지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되고 후에 일어나는 다른 조건들을 통해 와해 되기도 한다.

갤러리 스케이프는 호주태생의 작가 로렌 브린켓(호주)과 크레이크 월시(호주)의 작품을 번갈아 상영한다.



로렌 브린켓 'This Time Tomorrow, Twmpelhof(2001)'(이화의갤러리 제공)©News1

로렌 브린켓은 공항의 활주로를 따라 걸다가 점으로 사라지는 'This Time Tomorrow, Twmpelhof (2001)'을 선보였다. 베를린 텀펠호프 공항은 1923년 개항돼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 전후 독일의 역사를 겪은 역사적 공간이다.

크레이크 월시의 'Standing Stone Site(2013)'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화 유적인 버렘 반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버렘반도는 수백만 개의 선돌( 선사시대에 세워진 받치돌)이 빼곡하게 세워진, 호주 원주민들에게 매우 성스러운 장소지만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돼 개발이 움직임이 거센 지역이다. 월시는 하루의 극단적인 빛의 변화를 성스러운 선돌을 배경으로 인상적으로 담아냈다.

옵시스 아트는 심철웅(한국), 크레이크 월시(호주), 지오바니 오졸라(이탈리아)의 작품을 담았다.

심철웅의 'An Other River(2011)'는 영상의 위쪽에는 강남의 펼쳐진 아파트 및 고층 빌딩의 이미지들을, 영상의 아래 부분에서는 강북쪽에 조용히 지속적으로 물결치는 강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거꾸로 펼쳐지는 현대화된 고층빌딩의 이미지를 통해 한국의 급격하게 전개된 역사속에서 전통적인 문화적 풍경을 스펙터클한 장소성의 한 부분으로 보여준다.



데렉 크랙클러 'Untitled(2014)'(아트선재센터 제공)©News1

원앤제이갤러리에서는 데렉 크랙클러(호주), 바바라캠벨(호주), 왕펑(중국) 작가의 비디오 네점이 전시된다.

데렉 크랙클러의 'Untitled(2014)' 작품 속에 재현된 수평선은 해안의 늘어선 암벽위로 거세게 차도 치는 장면으로 재구성됐다. 조각조각 나눠진 움직이는 버티컬 사이사이로 투시되는 무채색의 수평선과 부서지는 파도는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 낸다.

바바라 캠벨은 비디오 설치 작품 'close, close(2014)'를 통해 눈에 보이는 지평선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암시되는 여러 개의 지평선을 작품속에 통합했다. 도요새의 행적을 담은 프레임은 관객들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며 각기 다른 지평선을 만들어 낸다.



바바라캠벨 'close, close(2014)'(아트선재센터)©News1

왕펑은 화면속에 두 개 이상의 공간적 관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 화면 구성에 대한 특별한 논리를 탐구한다. 'Beyond'(2014)에서는 화면이 반이 검은 공백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절반의 화면에는 작가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촬영한 장면이 보여진다.



이화의 갤러리는 정연두(한국), 실파 굽타(인도), 로렌 브린캣의 작품 1점씩을 전시한다.



정연두 Handmade Memories(2008)(이화의갤러리 제공)©News1

정연두 작가의 'Handmade Memories(2008)'는 두 쪽의 영상 작품으로 하나의 모니터에선 어르신 이 기차 여행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모니터에서는 미리 녹화된 기차길 장면이 연출된다. 이미지와 이야기의 조합 안에서 여러 개의 공간의 층을 깨달게 된다.

실파굽타의 'One Hundred Hand Drawn Map of India'는 공간의 묘사와 해석의 복잡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차례대로 루시되는 일련의 수많은 드로잉 영상들은 100명의 성인 인도인들이 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낸 인도 지도다. 다양한 형태의 지도들은 어떻게 정치적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집착되며 학습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김수자 '보따리-알파비치 나이지리아(2001)'(아트선재센터 제공)©News1

아트선재센터는 얀 디베츠(네덜란드)의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 김수자의 작업을 전시했다.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얀 디베츠는 초창기 미디어 아트와 선구자 중 하나다. 전시에서 소개된 'Horizon II'와 'Horizon III'는 평평하고 추상적인 스크린 공간에 작가가 카메라 프레임을 조작하며 촬영한 여러 각도의 수평선을 보여줌으로써 수평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는 수평선을 180도 전환해서 보여준다. 식민지로 향하는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비치의 뒤집어진 수평선은 역사와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보다 공포와 비극을 투사하는 장소가 된다.

전시는 아시아미디어아트그룹 MAAP의 기획으로 한국, 중국, 호주 3개국을 순회한다. 중국 상해(4.20~7.20)와 호주 브리즈번(9~11월)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체 기획은 킴 메이첸 호주 MAAP 디렉터가 맡았다.

MAAP는 호주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시대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기관이다. 전시는 아트선재센터, MAAP주최로 호주 문화 예술부, 호주 외무부 산하 호한재단, 퀸즈랜드 문화예술부 등이 후원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무료다.

#### 19) UNION PRESS 유니온 프레스 (FEB 23, 2014)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561>

전시  
전시현장&기획

**[전시현장] 미디어 아트와 함께하는 북촌 산책,  
6개 갤러리 연계 '하늘땅바다'展**

이영민 인천 | culture@unionpress.co.kr

승인 2014-02-23 23:45:43

한국적인 '공간' 북촌에 위치한 각기 다른 멋을 지닌 여섯 개의 갤러리 '공간'에서 각기 다른 '공간' 출신 작가 15명이 '공간'을 주제로 만났다.

호주 예술 기관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등 북촌 일대 6개 갤러리와 함께 <하늘땅바다>展을 2월 22일(토)부터 3월 23일(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시대를 사는 각기 다른 나라 출신 작가 15명의 비디오 영상물이 전시된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세계관을 지닌 작가들이 '수평선(또는 지평선)'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각자의 해석을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중국, 호주 3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호주-아시아 순회전 중 한국 전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가 15명의 작품을 공통된 요소로 묶어 6개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 이번 전시를 기획한 MAAP 디렉터 킴 메이첸은 “모든 전시를 준비할 때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 기발할 때가 있다”며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다.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여섯 갤러리로 나누게 됐지만, 오히려 장소를 이동하면서 보는 관람 방식이 전시의 색다른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자의 의도는 들어맞았다. 전시의 주제에 따라 대부분의 작품들이 하늘과 땅 혹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작품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15명이나 되는 작가들의 메시지가 섞여버렸을 위험이 있다. 6개의 갤러리로 나뉜 덕분에 갤러리 한 곳당 최대 작가 3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각기 다른 갤러리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작품 하나하나의 인상이 오래 남는다.



▲ '하늘땅바다' 전시 전경 © 유니온프레스 이영민 기자

아트선재센터에 들어서면 벽면 가득 하늘과 바다가 펼쳐진다. '수평선'이라는 같은 공간에 대한 작가 3명의 다른 시각이 담긴 작품들이다. 네덜란드 작가 안 디베츠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각도와 관점을 이동해 바다의 모습을 세 가지 방식으로 담아낸 '수평선(Horizon)' 시리즈를 선보인다.

포르투갈 출신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는 부표가 떠 있는 수평선이 시소처럼 움직이는 영상 작품 '강요된 공감(Forced Empathy)'을 통해 독특한 인상을 남긴다. 한국 작가 김수자는 수평선을 180도 전환해, '희망·긍정의 미래'를 상징하는 수평선의 의미를 180도 뒤집는다. 그녀는 작품 '보따리 - 알파 비치 나이지리아(Bottari - Alfa Beach Nigeria)'를 통해 식민지로 향하는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비치에서 노예들이 느꼈을 공포와 비극을 수평선에 투사한다.

원엔제이갤러리에는 작가 3명의 비디오 작업 네 점이 전시된다. 데렉 크랙클러의 작품에서 '수평선'은 해안의 늘어선 암벽위로 거센 파도가 치는 장면으로 재구성됐다. 영상 앞 설치된 조각조각 나뉜 버티컬 스크린 위로는 고요한 원해의 모습이 비친다. 선풍기 바람에 버티컬 스크린이 움직이는 사이로 역동적인 파도 영상과 고요한 수평선의 모습이 대조를 이뤄 작품은 역동적인 동시에 고요하다.

바바라 캠벨과 왕평은 관객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바바라 캠벨의 작품은 관객과의 거리에 따라 지평선을 바라보는 시점과 배경 음악이 변한다. 더불어 작가가 '가장 글로벌한 객체'라고 밝힌 '철새'가 작품 속에 등장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이번 전시의 의미와 연결된다. 작품 앞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감상하도록 설치된 왕평의 작품은 한 쪽 화면은 검은 공백인 채 나머지 절반의 화면에 작가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 장면이 등장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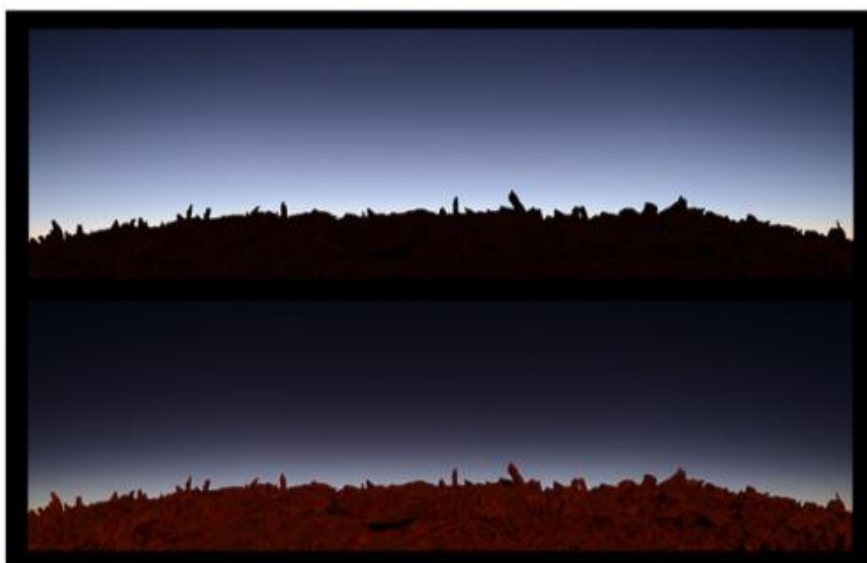


▲ 로렌 브린켓, This Time Tomorrow, Tempelhof, 싱글 채널 디지털 비디오, colour, audio, 5:19, 2012(제공=이화익갤러리)

갤러리인에 모인 작가들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활용을 보여준다. 폴 바이와 헤이모 조베르니그는 영상 뿐만 아니라 스크린과 그 뒤 벽면까지 작품에 포함시키는 등 공간 파괴 기법을 통해 새로운 ‘공간’ 개념을 제시한다. 왕 공신의 작품에는 마주본 두 벽면에 투사된 영상에서 가상의 탁구 게임이 진행돼 벽면 사이의 빈 공간마저 작품의 일부가 된다.

이화익갤러리에서는 정연두, 로렌 브린켓, 실파 굼타, 옴시스 아트에서는 심철웅, 크레이크 월시, 지오 바니 오졸라의 작품이 한 점씩 전시된다. 로렌 브린켓의 작품에는 작가가 직접 등장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베를린 내 폐쇄된 공항 활주로를 따라 걷는다. 크레이크 월시는 96개의 선물이 자리하고 있어 호주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지역의 일출과 일몰을 작품 속에 기록했다. 두 작가의 영상 작품은 갤러리 스케이프에서 번갈아 야외 상영 중이다.

갤러리마다의 거리는 멀어지면 코 당을 정도로 가깝지는 않다. 북촌이 낯선 관객이라면 각 갤러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땅·바다를 담고 있는 작품을 감상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실제 하늘을 보고 땅을 밟으며 작품의 의미를 곰씹어보는 일도 전시의 특별한 형식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다.



▲ 크레이크 월시, Standing stone site, 싱글 채널 디지털 애니메이션, 10분, 2012(제공=옴시스 아트)



## 전시장 6곳 돌며 감상하는 '하늘땅바다'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4-02-21 16:32



안디베츠\_Horizon III -sea2\_1971\_싱글채널비디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하늘과 땅, 땅과 바다,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지평선(혹은 수평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담은 미디어 전시가 열린다.

소격동 아트선재센터가 오는 22일부터 호주의 예술 기관인 MAAP(Media Art Asia Pacific)와 함께 여는 한국과 중국, 호주 3개국 순회전 '하늘땅바다'전이다.

전시는 아트선재센터뿐 아니라 인근 이화익갤러리와 원앤제이 갤러리, 옹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등 북촌에 있는 갤러리 5곳에서도 나눠 열린다. 상업 화랑 여러 곳이 한 전시를 연계해 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전시에는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중 하나인 안 디베츠(네덜란드)를 비롯해 바버라 캠벨(호주), 헤이모 조베르니그(오스트리아) 등 해외 작가들과 국내 작가 김수자·정연두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지면이나 수면을 가르는 하나의 선에 불과한 듯 보였던 경계에 대한 작가들의 고찰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들테면 안 디베츠의 '수평선' 시리즈는 여러 각도의 수평선을 보여 줘 자연 풍경을 기하학적 추상으로 바꾼다.

김수자는 2001년작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에서 노예선의 항해가 시작됐던 알파 해변에 대해 고찰한다. 작가가 "내가 본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선이었다"던 알파 해변의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뒤집혀 잔혹한 과거사를 투사한다.



정연두의 '수평기억' 시리즈 중 한 작품.

정연두는 두 개의 모니터로 공간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기억을 언급한다. 한 화면에서는 한 남성이 과거 기차선로에서 맺은 사랑의 기억을 회상하고, 다른 화면에서는 미리 녹화된 기차길 장면이 철길로 연출된 환경 위에 놓인다.

도요새의 행적을 추적하는 바버라 캠벨의 작품은 작품과 관람객의 거리에 따라 다른 장면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에 다가가면 화면의 윗부분이, 작품에서 멀어지면 화면의 아랫부분이 보이는 식이다.

수평선을 주제로 하다 보니 전시가 다소 잔잔하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이왕 전시를 보려면 전시장 한두 곳만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머지 전시장도 차례로 둘러보는 편이 좋겠다. 지도를 들고 다음 전시장을 찾아 이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전에 감상한 작품을 되새김하게 된다.

갤러리 스케이프는 오후 6~10시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영상을 야외 상영한다.

전시는 3월 23일까지. 오는 4~7월에는 중국 상하이, 9~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21) HERALD NEWS 헤럴드 생생 뉴스 (FEB 21, 20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1000886&md=20140224003438\\_BC](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1000886&md=20140224003438_BC)

**라이프**  
미술관

봄날의 '비디오 아트' 산책...삼청동 6개 갤러리 연  
계 '하늘땅바다' 전

기사입력 2014-02-21 14:56    [가+](#)   [가-](#)   [인](#)   [프](#)

**헤럴드 팟캐스트** [바로가기](#)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하나의 [전시](#)를 위해 여섯 개 갤러리가 뭉쳤다.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옴시스아트, 원앤제이 갤러리, 이화익 갤러리 그리고 아트선재센터는 22일부터 오는 3월 23일 까지 '하늘땅바다(LANDSEASKY)'전을 연다.

다수의 상업 갤러리들이 한 전시를 연계해서 개최하는 이례적 [이벤트](#)다. 이번 전시는 2013년 '아시아의 [호주](#) 예술상'을 수상했던 'Light from Light'를 기획한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진두지휘했다. 한국전시를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4월 19일~7월 20일)를 거쳐 호주 [브리즈번](#)(9월 18일~11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순회전이다.



개그맨  
김원효 별장,  
은행이자  
3배 수익을  
받는다

일주일명미술  
개그맨 김원효



안디베초 'Horizon III -sea2', 상글채널비디오, 1971. [사진제공=MAAP, 호주]

이번 전시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헤이모 조베르니그(56·[오스트리아](#)), 안 디베초(73·네덜란드), 데렉 크랙클러(62·호주), 왕평(50·중국)등 해외 [작가](#)들과 김수자(57), 정연두(45) 한국작가까지 20여명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모든 작품은 전시 제목인 '하늘땅바다', 즉 수평선으로 표현되는 세가지 [요소](#)를 담았다. 수평선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는 '경계의 표식'이다. 예술가들의 사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각과 우리가 살고있는 현세대를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TV나 [스마트폰](#) 등 일방향적인 [영상](#)매체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이들의 작품은 한편 심심하고, 어렵기까지 하다. 관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안디베츠 'Horizon III-sea1', 싱글채널비디오. 1971. [사진제공=MAAP, 호주]

[크로마키](#)(Chroma-key · 특정 색을 빼버리고, 다른 배경을 합성시키는 비디오 기술)를 활용한 헤이모 조베르니 그의 '무제'는 6개 [스크린](#)을 엮갈리게 중첩한 뒤 영상을 투사한다. 영상 속 인물은 그 안에서 스크린을 설치하며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우리 앞에 가져온다. 어떤것이 투사인지, [편집](#)된 것인지, 실제인지 혼란스럽다. 평면에 상영되던 비디오 아트가 입체의 형태를 띄며 설치예술로 변했다.

초창기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안 디베츠의 '수평선' 시리즈도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각도의 수평선이 기하학적 추상을 연상시킨다.

김수자는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를 선보였다. 흑인 노예를 송출하던 나이지리아 알파 해변을 [촬영](#)한 이 작품은 위 아래가 뒤집어진 수평선이다. 작가가 "지금까지 본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선"이라고 말한 알파 해변의 수평선은 노예무역의 아픈 [역사](#)를 담고도 묵묵하고 고요하다.





김수자 '보따리', 알파비치 나이지리아, 싱글채널비디오, 2001. [사진제공=MAAP, 호주]

전시 정보가 담긴 [지도](#) 한 장을 들고 여섯 곳의 갤러리를 돌아다니는 동안 이전 작품에 대해 자연스럽게 곱씹게 된다. 전시를 기획한 MAAP의 김 메이첸(Kim Machan) 디렉터는 “갤러리와 갤러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사이, 그 짧은 거리까지 전시의 연장선상이 됐다. 관람객의 사유를 도울 수 있는 장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덕분에 삼청동 전체를 아우르는 전시로 거듭났다. 전체 작품을 천천히 감상하려면 두 시간은 족히 걸린다. 급한 [마음](#)은 접어두고, 봄 날의 삼청동과 북촌 일대를 산책하는 기분으로 나서길 권한다.

vicky@heraldcorp.com

**HERALD MAGAZINE** 헤럴드 고품격 프리미엄 매거진



헤이모 조베르니그 '무제', 싱글채널비디오 · 음향, 6개 프로젝션 스크린 [사진제공=MAAP, 호주]

22) CNB NEWS 씨엔비 뉴스 (FEB 21, 2014)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27229>

## “이미지 공간과 현실 공간을 거닐며 ‘수평선’을 생각한다”

북촌 일대에서 ‘하늘땡바다’전 여는 호주 MAAP 디렉터 킴 메이첸

CNBNEWS 안창현 기자 / 2014.02.21 20:41:10



▲ 전시에 대해 설명하는 킴 메이첸(Kim Machan), 오른쪽부터 국내 참여작가인 심철용, 정연구, (사진=안창현 기자)

(CNB=안창현 기자)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기관 MAAP (Media Art Asia Pacific)와 국내의 6개 전시장이 연계해 ‘하늘땡바다’전을 2월 22일부터 선보인다. 아트선재센터와 함께 갤러리 스키퍼, 옴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갤러리 IHN 등 6개 전시공간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작가 20여 명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상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 제목 ‘하늘땡바다(LANDSEASKY)’는 ‘수평선(horizon)’으로 표현되는 3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MAAP 디렉터 킴 메이첸(Kim Machan)은 얀 디베츠(Jan Dibbets)의 작업에서 이번 전시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얀 디베츠는 1970년에서 1971년에 걸쳐 Horizon 시리즈를 많은 단편으로 제작했으며 그의 계속된 시도는 2007년 발표된 사진 연작 ‘Land and Sea Horizons’까지 계속 되었다.”

직무적성검사  
무료 이벤트

공채 취준생은 꼭!!!  
75,000원 → 0원





▲ 안 디베츠, 'Horizon III-sea 2', 싱글채널 비디오, 1971, (도판제공=아트선재센터)

이 작품들은 수평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즉 땅에서 하늘 또는 바다에서 하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수평선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공간적 효과와 시점에 대한 확장된 연구로 발전시켜 나갔다. “수평선이라는 주제의 보편성과 단순함에 대한 고찰이 바로 이번 전시의 시작점이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 역시 수평선을 통해 예술과 삶에 있어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하는 작가들 만나볼 수 있다. 안 디베츠를 비롯해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 바바라 캠벨 등과 함께 국내작가로는 심철웅, 김수자, 정연두가 참여했다.



▲ 바바라 캠벨, 'close, close', 싱글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2014, (도판제공=원앤제이갤러리)

전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호주작가 바바라 캠벨(Barbara Campbell)은 비디오 설치작품 'close, close'에서 인위적인 수평선을 통해 관찰과 행위 사이에 공간을 만들면서 관객의 색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와 호주를 거치는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주하는 도요새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번식지인 시베리아와 극지방에 도달하는 긴 여정 중에 철새는 필요한 먹이와 휴식을 위해 한반도와 중국 동해안에 잠시 머문다. 이러한 철새의 이동 경로가 묘하게 이번 전시의 순회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하늘땅바다'전은 이후 중국과 호주로 순회 전시를 할 예정이다. 더구나 서울의 이번 전시는 한 전시 공간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6개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 소개된다. 김 메이첸은 "중국과 호주에서의 전시는 미술관 하나에서 모든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 전시는 그럴 수 없었다. 전시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런 와중에 흥미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한다.

공간성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들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전시 자체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다. 북촌 일대의 6개 전시 공간에서 각기 소개되는 작품들을 보기 위해 관객들은 전시장을 옮겨 다닐 것이고, 이런 측면은 전시의 주제뿐만 아니라 전시의 형식에서도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현 기자 isangahn@cnbnews.com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23) F.OUND 파운드 매거진 (FEB 20, 2014)

<http://foundmag.co.kr/335747>

news > 전시

f Like

0

Tweet

1

## 2/21~3/23 | 전시 <하늘땅바다>

by F,OUND / 2014.02.20

코퍼레이션 > 아트선재센터

지평선을 보다  
전시 <하늘땅바다>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 강요된공감(Forced empathy)still\_2011\_7min29sec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예술가 20여 명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하늘땅바다>가 오는 2월 21일(금)부터 3월 23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호주 문화부 장관이 선정하는 '아시아의 호주예술상'을 수상한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전시로, 한국, 중국, 호주 3개국에서 차례로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아트선재센터 및 북촌 일대 5개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아트선재센터에서는 얀 디베츠와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 그리고 김수자의 작업을 선보인다. 네덜란드 미술가 얀 디베츠는 초창기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평하고 추상적인 스크린 공간에서 작가가 카메라 프레임을 조작하며 여러 각도의 수평선을 촬영한 작품 '수평선 II'와 '수평선 III'를 통해 수평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설치, 영상, 디지털 프린트, 음성 기록 작업 등을 통해 매체의 특수성을 탐구하는 작가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는 작품 '강요된 공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화면을 보정하여 독특한 공간 감각을 자아내는 바다 위 부표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작가 김수자는 식민지로 할하는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비치의 수평선을 180도 전환해 보여주는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를 선보인다.

지평선을 통해 예술과 삶에 있어서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하는 전시 <하늘땅바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선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시 일정** 2월 21일(금)~3월 23일(일)

**전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인, 갤러리스케이프

**홈페이지** [www.artsonje.org](http://www.artsonje.org)

## 24) CNB NEWS 씨엔비 뉴스 (FEB 19, 2014)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26958>

### 북촌 거닐며 동시대 유명 작가들을 만나다

아시아 최고 시각예술상 받은 MAAP의 호주-아시아 순회 전시

CNBNEWS 안창현 기자 / 2014.02.19 17:37:28

(CNB=안창현 기자) 북촌 일대에서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하늘땅바다 (LANDSEASKY)' 전시를 2월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만나볼 수 있다. 아트선재센터와 갤러리 스페이프, 옴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갤러리 IHN 등 북촌에 위치한 6개 전시 공간이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예술가 20여 명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상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MAAP는 호주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시대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기관이다. 'Light from Light'전이 2013년 아시아 예술 공헌 부문에서 최고의 시각예술기획 상을 수상한 이후 '하늘땅바다'전은 MAAP가 기획한 첫 순회 전시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 상하이와 호주 브리즈번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다.



▲ 김수자, '보따리-알파비치(나이지리아)', 싱글채널비디오, 6'18", 2001, 스틸 이미지. (도판제공=아트선재센터)

전시 제목인 '하늘땅바다(LANDSEASKY)'는 '수평선(horizon)'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하늘과 땅, 바다의 수평선을 통해 예술과 삶에 있어서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한 작가들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얀 디베츠(Jan Debbits)는 카메라를 예술 제작에 이용하기 시작한 초창기 미디어아트 선구자의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970년대 그의 작업 이후로 카메라 프레임으로 조작해 인간의 지각 방식에 대해 실험한 다양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의 김수자, 정연두, 심철웅 작가도 참여한다.



전시가 북촌 일대의 6개 공간에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은 전시장을 옮겨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작품과 전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사이'를 느끼는 흥미로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cnnbnews.com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25) CHEONJI ILBO 천지일보 (JAN 14, 201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4>

뉴스 > 문화 > 전시

## '하늘땅바다'로 보는 우리 가슴 속 지평선

이현정 기자 | tomato@newsqj.com

2014.01.14 19:38:09



### 호주예술 부문 '최고 시각상'의 빛나는 MAAP 새 기획전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지평선을 나누는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우리 가슴 속 지평선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하늘땅바다 (LANDSEASKY)' 전시가 서울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아트선재센터와 상하이의 OCT(OCAT Contemporary Art Terminal) 및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를 아우르며 한국, 중국, 호주를 순회한다.



예술단체 MAAP(Media Art Asia Pacific)의 '하늘땅바다' 전시는 '지평선(horizon)'으로 표현되는 3개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써, 지평선은 평면이나 지면을 가로지르는 한 줄의 선으로 대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에서 현재 가장 첨예한 동시대 작가들은 지평선을 예술과 삶에 있어 인간의 지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주제를 탐구하는데 이용했다.

지난 전시 'Light from Light'로 MAAP는 최근 호주 예술 부문 아시아 예술 공헌 부문에서 최고의 시각 예술 기획상을 받았다. '하늘땅바다'는 MAAP이 상을 받은 이후 처음 기획하는 순회전시이다.

'하늘땅바다'는 MAAP의 문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접근 방식으로 다문화 교류의 쟁점에 차별화된 접근을 유도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창작된 새로운 작품들은 카메라를 예술제작에 이용하기 시작한 초창기 미디어 아트 선구자 중 네덜란드 개념미술 작가 얀 디베츠(Jan Dibbets)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초반의 몇 명 영상 작품들과 일맥상통하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하늘땅바다'에 전시되는 얀 디베츠(Jan Dibbets)의 작품 'Horizon II(1971)'와 'Horizon III(1971)'은 평평한 추상적인 공간인 스크린에 작가가 카메라 프레임을 조작해 촬영한 여러 각도의 지평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평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다.

본 전시는 순회가 있는 각 나라별로 새롭게 배치돼 전시된다.

첫 번째 전시 개최장소인 서울에서는 한국의 주요 미술관과 상업 갤러리들이 함께 해 총 6개의 갤러리에 분산돼 전시 될 예정이다. MAAP의 '하늘땅바다' 전시는 내달 21일 관람할 수 있다.